

동일신보

무소속대변자

제44호 [루계 제2195호]

주제 101
(2012). 10

27
토요일

음력 9. 13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지지하는 진행 국제련대성회의

10.4선언발표 5돐에 즈음하여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지지하는
국제련대성회의가 국제반제조정
위원회의 주최로 4일 인디아의
콜카타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국제반제조정위원회,
전인디아반제연단, 조선인민파
의 친선 및 평대성단체 인사들과
성원들, 인디아의 각계인사들이
참가하였으며 조선아프리카-아
시아련대성위원회 서기가 초대
되었다.

회의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들은 협력적인 6.15북
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
일을 위한 리정표로 된다고 일치
하게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를 자주
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
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
대성을 표시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편지가
책임되었다.

또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
업을 지지하는 련대성회의가 채
택되었다.

우리는 김정은원수의 령도밑
에 제국주의 자들의 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서나가는 조선의 당
과 군대, 인민에게 지지와 성원
을 보낸다.

본 회의는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합세파와 남조선
피뢰정권이 반공화국책 동을 중지
할것과 미국이 남조선에 있는 침
략무력을 당장 철수하고 조선에
대한 제재와 봉쇄를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남조선《정권》이 북남공
동선언들을 리행하며 외세의 간
섭과 군사적 행동이 없이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협
상에 응해나을 것을 촉구한다.

결의는 협력적인 북남공동선
언들을 전면부정하고 북남관계
를 대결국면으로 몰아간 리명박
파 쇼도당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책동을 까밝히고 다음과 같이 지
적하였다.

미국과 남조선피뢰도당은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

는 군사적 도발을 끊임없이 감행
하고 있다.

우리는 김정은원수의 령도밑
에 제국주의 자들의 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서나가는 조선의 당
과 군대, 인민에게 지지와 성원
을 보낸다.

조국통일위업은 본질에 있어
서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
고 단합을 실현하는 전민족적 위
업이다.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 조국의 자
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온 6.15통일시대의
격동적인 현실은 우리 겨레가 조
국통일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자각하고 화합하고 단합
할 때 안팎의 온갖 도전을 물리
치고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전
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 주었다.

결의는 협력적인 북남공동선
언들을 전면부정하고 북남관계
를 대결국면으로 몰아간 리명박
파 쇼도당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책동을 까밝히고 다음과 같이 지
적하였다.

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굳
은 련대성을 보낸다.

본사기자

화해와 북남관계개선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선보수체당의 반통일책동은 추호
도 용납될수 없다.

추악한 권력야욕실현을 위해 동
족을 모함하다 못해 남조선내부에
까지 동족대결의 《종북》소동을
일으키는 《새누리당》은 민족의
화해와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암적존재이고 한시비빠 척결해야
할 민족내부의 적이다.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을 방해하면서 북남관계를 최악
의 파국상태에 몰아넣는 남조선
당국의 반통일적이며 동족대결적
인 책동을 짓부서버리기 위한 거
족적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통일운동의 성패는 전적으로
조국통일을 절절히 바라는 우리
겨레가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여
주체적통일력량을 튼튼히 마련하
는데 있다.

우리 민족이 반통일세력의 악
랄한 도전을 짓부시고 조국통일
의 문을 열어제기기 위해서는 6.
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
지밀에 하나로 굽게 뭉쳐야 한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
고 모든것을 여기에 복종시키며

나라의 통일과 관련한 문제는 민
족자주의 입장에서 우리 민족끼
리 해결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
계층 동포들이 협력적인 북남선
언들을 고수하고 리행하는 길에
서 서로의 힘과 지혜, 열정을 하
나로 합쳐나갈 때 북남관계가 겨
레의 의사와 지향에 맞게 옮바로
발전할수 있고 통일의 날도 앞당
길수 있다.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
데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길이 있다.

온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민
족자주를 실현하고 이 땅의 평화
를 지키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해
나가는 7천만 우리 겨레의 거족
적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그 어디
에도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적단합
을 이룩하고 반통일세력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며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조국통일위업을
기여이 실현하고야말것이다.

김회일

나날이 변모되어가는 평양의 모습

평양시 상홍아동공원 개건보수공사 완료

리도록 크나큰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였다.

인민의 군대로서의 사명감
을 깊이 간직한 지휘관, 병
사들은 전투임무를 받은 즉
시 공사에 달라붙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판교
양마당을 보다 훌륭히 꾸리
였으며 공원입구에 무지개 모
양의 문주를 특색있게 설치
하였다.

제일 어려운 공사과정의
하나인 2 000여 m²에 달하는
로라스케트장건설장이 불도
가니마냥 끝이번지였다.

수천 m²의 기초굴착과
콘크리트치기 및 인조석미장
을 와타다 해제긴 인민군
군인들은 스케트장의 수평
을 보장하기 위한 연마작업
에서 기술공정의 요구를 엄
격히 지키면서 일손을 다그
쳐 이를동안에 맡은 과제를
풀었다.

로라스케트장이 최상의 수
준에서 완성된데 이어 현대
적인 종합체육장을 건설하
기 위한 전투가 동시에 벌

어졌다.

미니팔프장, 룽구, 배구,
정구, 바드민톤장이 새로 건
설되었으며 로인들과 근로자
들이 간편한 운동을 할수 있
는 9종에 10여개의 건강운동
기체도 설치되었다.

1만 1 600여 m²의 보도블로
크깔기가 마무리되고 1만 5
100m²의 면적에 잔디가 새로
심어졌다.

공원의 특성에 맞게 어린
이들이 리용할수 있는 미끄
럼대들을 새로 갖추어주고
부족되는 자재를 자체로 해
결하여 수백개의 돌상과 돌
의자, 원형의 저 등을 풍치에
어울리게 잘 만들어놓았다.

어린이들이 행복넘친 모습
을 형상한 금속조각과 물개
조각들로 이루어진 꽃모양
의 분수못, 꽃곳에 있는 동
물조각들 그리고 왕문어미끄
럼대, 배그네를 비롯한 유희
시설들도 군인들의 뜨거운
지성과 혁신적노력이 깃들어
있다.

본사기자



보통강정리공사 성과적으로 결속

김정일에 국주의 열풍이 온
나라에 세 차례 휘몰아치는
속에 보통강정리공사에 떨
쳐나선 인민군장병들이 백두
산혁명강군의 위력을 다시금
힘있게 펴시하였다.

불가능을 모르는 영웅적조
선인민군의 단숨에의 공격정
신이 비약과 혁신으로 이어
져 9일만에 78만여 m²의 강탕
파기와 주변정리 등이 전부
끌나고 보통강이 인민의 강,
락원의 강으로 더욱 아름답
게 변모되었다.

공사장 전구간을 들었다
놓는 화선식정치사업과 진취
적인 작전과 지휘, 부대들사
이의 사회주의경쟁으로 전투
장마다 세 차례 들끓었다.

공사장 치우부에서는 강탕파
기와 처리를 주공방향으로
정하고 대상별 주변정리작
업들을 립체전, 섬멸전의 방
법으로 동시에 내밀면서 대
답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

는 그 규모와 작업량에 있
어서 방대하고 아름찬 파제
였지만 인민군장병들의 가
슴가슴은 경애하는 원수님
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실현
할 맹세로 끊어번지였다.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
답게 합장강정리공사에
탁탁 해제긴 기세로 산악같
이 일떠서 공사에 진입한 인
민군인들은 시작부터 치렬
한 돌격전을 벌리였다.

공사장 전구간을 들었다
놓는 화선식정치사업과 진취
적인 작전과 지휘, 부대들사
이의 사회주의경쟁으로 전투
장마다 세 차례 들끓었다.

공사장 치우부에서는 강탕파
기와 처리를 주공방향으로
정하고 대상별 주변정리작
업들을 립체전, 섬멸전의 방
법으로 동시에 내밀면서 대
답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

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
들었다.

조국산천을 아름답게 변
모시키려는 인민군인들의
의 애국충정과 힘찬 투련
에 의해 전투가 시작되어
불과 24시간만에 33만여 m²의
감탕을 파내는 위훈이 창조
되었다.

류전기체들의 실돌률을 높
여 6일째되는 날에는 강탕파
기와 강탕운반을 100%로 수
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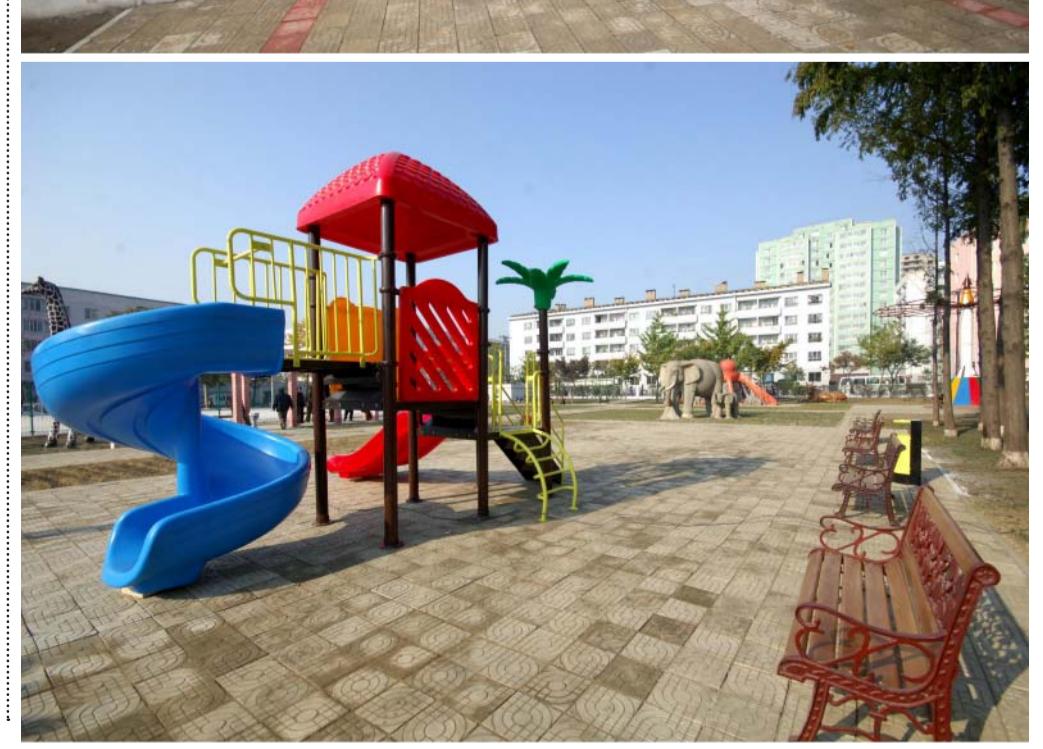
1, 2, 3, 5구역의 군인들
은 강탕파기와 운반을 남먼
저 끝에 기세로 용벽보수와
지대정리를 달라붙었다.

전 넘쳐수행하였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모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군인들은 창광원앞 련못감
탕파기와 지대정리를 불이
번쩍나게 다그쳐 끝내였으며
자기 집뜰안을 꾸리는 심정
으로 통홍교주변 공원을 개
건보수하여 주민들로부터 호
평을 받았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깃든 보통강을
건설하고자 힘든 투쟁으로
진행되었다.

공사기간 성, 중앙기판,
평양시당위원회와 시민민위
원회를 비롯한 시내 많은 단
위의 일군들과 군인들이
성의있는 원호로 군인건설자
들의 사기를 북돋이주었다.



통일은 공동선언으로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 강령이며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통일을 추동하는 고무적인 기치이다.

역사적인 10.4선언에는 북남관계를 호상증증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기 위한 문제,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문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 사업을 공리공용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확대발전시키는 문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는 문제 등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제반 문제들이 폭넓게 반영되어 있다.

10.4선언이 발표됨으로써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투쟁은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새로운 실천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온 겨레는 통일위업 실현에 대한 신심과 땀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께서는 10.4선언의 채택으로 해내외에서 높아가는 겨레의 자주통일 열기를 더욱 고조시켜 조국통일운동사에 일찌기 있어 본적이 없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

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였다.

10.4선언발표 이후 북남총리회담을 비롯한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의 접촉과 대화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북남사이에 공동의 추진기구들이 구성되어 선언행위를 위한 투쟁은 전민족적 범위에서 힘차게 벌어지게 되었다.

부파 남, 해외의 온 겨레는 10.4선언을 리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나가는 여기에 조국통일과 공동번영을 이루하는 길이 있고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 철리를 새겨안게 되었다.

10.4선언이야말로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 민족의 공동번영과 나라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포괄적으로 밝힌 행동지침이며 실천 강령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 세기 자주통일의 대강으로 마련해주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당성, 생활력을 이미 실천을 통하여 남김없이 확증되었다.

남조선보수당이 북남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하고 그 리행을 가로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말아하는

여왔지만 우리 겨레의 통일의 지와 투쟁기운은 더욱 뜨겁게 분출되고 있다.

현시기 남조선과 해외에서는 집권기간 추악한 외세굴종과 동족대결책으로 겨레의 통일지향과 혐오를 짓밟은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을 단호히 심판하고 6.15시대를 계속 전진시켜나가려는 대중적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조국 통일 위업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오늘도 출기차게 전진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조국통일의 업적을 겸려히 응호고수하시고 통일을 위한 투쟁에 온 겨레를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계신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럭사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친명하시였다.

그뿐 아니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

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 작들을 발표하시여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실 굳은 의지를 천명하시고 통일운동의 휘황한 진로를 밝혀주시였다.

한낮에 적들이 고양이 보이는 판문점의 로대에 서서向着 청진협정조인이 아니라 항복서에 도장을 받아내겠다고 말씀하시고 전쟁위험이 절제 드리운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나가시여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을 명령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준공을 앞둔 민속공원을 돌아보시면서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도 꾸려놓아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할 결심을 하여 굳게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령장의 모습에서 우리 겨레는 조국통일의 밝은 아침을 보고 있으며 평화번영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다.

북파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도따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가치높이 조국통일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루어하고자 말것이다.

김 장호

각하는지 어이없다.》, 『박근혜는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집권아우 부리지 말라』고 규탄하는 글들이 집중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바다물이 짠줄은 한방울만 먹어봐도 안다는 말이 있다. 사실들은 여당후보야말로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인간 오물을 반공화국모략과 비방증상으로 적극 부추기고 내보는 자본인이며 그의 동족대결본성과 국우보수적체질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반북대결을 제칠하고 앞뒤가 다르게 행동하는 정치인들에게 차례질것이란 대중의 쓰디쓴 환멸과 배척밖에 없다는것을 박근혜는 뚜렷히 알아야 한다.

박 절 남

북남관계의 파국을 몰아온 원흉 (3)

핵문제로 북남관계에 차단봉을 드리워

리명박보수당은 집권기간 미국의 핵전쟁사화군, 반북대결의 돌격대가 되여 그 누구의 『핵문제』를 구실로 반공화국대결소동을 악랄하게 벌려왔다.

리명박은 이미 집권전부터 『북핵 폐기시키는것이 남북관계 현안중 가장 중요한 문제』라느니, 『북이 핵폐기와 개혁, 개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그 어떤것도 기대 할수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다.』느니 하고 역설하면서 『북핵폐기가 남북관계의 대전제』라고 떠들어댔다.

집권후 『비핵, 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공식 선포한 리명박 보수당은 『북핵 폐기』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선결과제』, 『가장 큰 판결』 등으로 봇았으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북남관계를 한걸음도 전진시키지 않으려는 속심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국상전을 찾아가 반공화국 핵보수당은 공화국을 고립 암살하기 위한 미국의 대조선적 대시정책의 산물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반입과 핵전쟁소동, 핵위협때문에 바로 조선반도의 핵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보수집권세력이 외세의 핵소동에 맞장구를 치는것은 외세를 통해 업고 동족을 해치기 위한 범죄적 기도의 발로이다.

남조선보수당은 미국의 『선효포기』 전략에 추종하여 『파거에는 남북관계가 북핵문제에 비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북핵문제에 대해선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웨처됐는가 하면 『(한) 미동맹은 (한) 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전략적 기반』이라고 떠들어댔다.

리명박이 여러 차례 미

겨났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지난 2007년에 진행된 『대통령선거』 때에도 미국은 수많은 선거전문가들을 남조선에 파견하여 『선거』 작전을 막후지휘함으로써 빠져나온 친미인 리명박을 당선시키고 죄를 헤웠다.

제18대 『대통령선거』를 가까이하고 있는 남조선에서 지금 정치정세는 보수세력에게 날로 불리하게

번져지고 있다. 『새누리당대선』 후보의 『5.16쿠데타』 미화발언과 정수장학회문제 등으로 인해 보수당에 대한 민심의 환멸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바빠맞은 미국은 어떻게 하나 보수집권세력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난 5월에는 미국회 하원 외교위원회를 비롯한 회관계자들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대조선전문가들을 남조선에

과연하여 보수당에게 『대통령선

상 살아숨쉬기 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미일상전들은 정치총장인 리명박역도를 외면하고 주변나라들도 정신분열증세를 일으키는 보수당의 대결망동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 보수세력은 그야말로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되고만 것이다.

류우익이 이번에 『새로운 통일한국』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느니, 『국제 사회의 협조 없이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니 뛰어나면 정상적인 남북관계와 통일의 길이 열릴것』이니 하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한마디로 이것은 안팎으로 궁지에 몰린 자들이 저들이 초래한 북남관계파란의 책임을 보면하며 광란적인 반공화국대결정책을 합리화해보려는 낙수리에 불과하다.

조선반도 정세가 오늘과 같이 최악의 전쟁국면에 처단된 된 근본원인 남조선보수당국의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에 있다는것은 리명박의 집권 5년을 통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리명박보수당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으로 하여 6.15시대의 성과들은 모조리 말살되고 모든 사업들이 전면 차단되었으며 조선반도에는 핵전쟁위험이 시시각각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속에 남조선에서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반리명박투쟁열기 가 더욱 고조되어 보수당의 아성을 뿌리째 뛰흔들고 있다. 집권기간 북남관계를 사상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놓고 민생을 도란에 빠뜨리다 못해 남조선을 인권불모지, 반통일대결장으로 만든 리명박은 그 폐거리들은 더이

림 소영

『북풍』은 박의 치마바람

신념이나 의리는 고사하고 인간의 초보적인 양심마저 쿠비린 이자들이 하는짓이란 몇푼의 돈을 받아먹고 자기를 품어주고 키워준 어머니조국을 험뜰은 빠라살포를 벌리거나 『동ako』와 같이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겨냥한 특대형례로 범죄를 감행하는것이다.

그런데 명색이 여당의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이파리에 역적집단, 반북모략파괴자리에 『축하메세지』라는 것을 보내고 『통일의 희망』이 되기 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냈다고 한다.

공화국에 대한 로그적인 도전이며 반공화국대결본심의 발로가 아닐수 없다.

잘 알려진 것처럼 『북민련』이라는 것은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너절한 인간쓰레기들이 추악한 범죄자 황장엽이 죽은지 2년째 되는 날 오가집행들을 깨어모아 만들고 더럽기 짜이 없는 반공화국모략집단이다.

이번 『축하메세지』 사건은 결과 속이 다른 그의 이중적 정체도 드러내보이고

있다. 지금 여당후보는 『국민대통합』과 『북남관계개선』을 『공약』으로 내들고 자가 당선되면 리명박 『정권』과는 다른 정책을 펼칠 것이다.

하지만 돌아앉아서는 반공화국모략집단들을 『격려』하고 부추기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그가 『대통령』이 되면 리명박도 무색케 할 것이다. 『대통령』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누가 파악 장담할수 있겠는가.

그럴 경우 북남관계는 회복이 아니라 오늘보다 더 험악한 상태로 치닫게 되리라 는 것은 불도 명백하다.

13일 간이나 이른바 『국토대행진』이라는 것을 보내고 『통일의 희망』이 되기 위해 『축하메세지』를 보내고 『북풍』 진원지,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반북대집대묘, 『박근혜가 원하는 화합이 이런것인가?』, 『이런것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

라살포를 하려다 조선인민군의 임종한 경고로 좌절당하고 끝내 판례를 벼라살포행위를 감행한 『북민련』 멀거지들의 망동은 이것들이야말로 이 땅에 대결과 전쟁을 불러오는 화근덩어리라는것을 잘 보여주었다.

그런데 여당의 『대선』 후보가 이런 것들을 『격려』하는 놀음을 했으니 자기의 정체를 고스란히 드러내놓은 것이다.

하기에 남조선인터넷에는 『북민련』에 『축하메세지』를 보내 그를 두고 『박근혜가 바로 『북풍』 진원지』,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반북대집대묘』, 『박근혜가 원하는 화합이 이런것인가?』, 『이런것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

진 각으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보수단체의 빠라살포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본사기자

지원하는 『북인권법』 제정을 추진해 이를 더욱 부추겼다.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내곡동특검 등으로 둘째되는 시점에 군사적 강점과 안보 정부는 『선거』 개입의 혹을 살것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 어그들은 『리명박(정부)』는 상호비방 중단을 약속한 남북간합의를 리행하고

군사적 충돌방지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조건없이 재개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립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전단지 실포 당 중단하라!!』

본사기자

반도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계시물, 빠라 등을 통한 비방증상을 중단하고 보수단체들의 반공화국비라살포행위를 중지시키며 그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할것이라고 단체들은 주장하였다.

단체들은 합동참모본부의 장이 『도발에 대처한 선제

전쟁소동의 중지를 요구

반도는 더욱 부추겼다. 그들이 『정부』와 보수세력이 저들의 재집권을 위한 전쟁소동을 중단하고 보수단체들의 반공화국비라살포행위를 중지시키며 그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할것이라고 단체들은 주장하였다.

단체들은 합동참모본부의 장이 『도발에 대처한 선제

전쟁소동의 중지를 요구

반도는 더욱 부추겼다.

또한 리명박이 연평도에

나타나 『북방한계선 고수』

를 운운하며 북을 자국하는

호전적 망동을 하였다고 성명은

되었던 것이다.

성명은 『정부』와 여당이 모든 전쟁도발발언과 행위를 당장 그만둘것을 요구하였다.

성명은 『정부』와 여당이 재집권을 위해 『북풍』 조작에 열을 올리며 국민의 생명

을 놓고 전쟁도박을 하는것을 보면 파연 제정신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규탄하였다.

성명은 협 『정부』와 여당이 모든 전쟁도발발언과 행위를 당장 그만둘것을 요구하였다.

성명은 협 『정부』와 여당이 재집권을 위해 『북풍』 조작에 열을 올리며 국민의 생명

을 놓고 전쟁도박을 하는것을 보면 파연 제정신이 있는지 의심스

권력에 환장한자들의 새로운 《북풍》 소동

최근 남조선이 《새누리당》의 《북방한계선》 소동으로 소란하기 그지없다.

지난 8일 《새누리당》 의원 정문현이 《국회 국정감사》라는 대로 그에 《북방한계선》은 국제 해양법 협약이나 정전 협정에 전면 배치되고 지난 시기의 북남 합의에도 부합되지 않는 유령선이다.

하기에 미국과 남조선 당국도 이미 1970년대에 《북방한계선》의 일방 성과 비법성에 대해 인정하면서 국제 법에 위반된다고 시인하였다.

그뿐 아니라 이전 미국 무장부관 키신저와 미국의 여러 정치인들도 《북방한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은 《확실히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실로 하였다.

때문에 공화국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조선서해에는 《북방한계선》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공화국이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있다 고 선포하였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것들이 《령도주권과 안보보존》이요, 《북방한계선과 폭기구현》이요 하면서 떠드는 것은 사실에 대한 파렴치한 외곡이고 전쟁의 발화점으로 되고 있는 서해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는 위험천만한 놀음이다.

《대선》을 노린 《새누리당》의 또 하나의 비렬한 기도가 아닐 수 없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북방한계선》

이란 미제가 일으킨 조선전쟁이 종식된 직후인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가 조선서

군사적 모의를 벌려놓고는 그 무슨 《화장역제 강화》를 제창해왔다. 그들이 떠들어대는 《화장역제 강화》는 본질에 있어서 조선반도 《유사시》 남조선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제 침략군을 비롯한 세계전역의 미군 무력을 총동원하며 핵무기 및 재래식 전쟁 장비와 함께 미싸일 방위체계를 비롯한 《모든 범주의 전쟁능력》을 대대적으로 투입

한국의 전 지역을 짚은 시간에 미싸일로 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이라는 구체적인 타격체계까지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군사적 모의 놀음은 본질에 있어서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 침략 공격론으로서 여기에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기어이 도발하려는 내외호전 세력들의 범죄적 기도가 비껴있다.

그리고 25일

부터는 수백 명의

미군을 비롯한

수십 만의

무력

과 최신 전쟁 장

비들이 동원된

《호국》 합동 훈련을 남조선의 전 지역에서 벌려놓고 있다. 또한 남조선당국은 미국

과의 공모하에 공화국의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

싸일 전쟁 선언》이라는 것을

공포하였으며 6. 25 전쟁 시기

를 가상한 《춘천대첩》,

《박동강지구 전투 전승 기념 행사》와 같은 반공화국 대

결전 대국들을 도처에서 벌리고 있다.

그런가하면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공격용 승강기, 《글

로벌 호크》 정찰기, 《스파이크》 미싸일을 비롯한 최

신전쟁 장비 수입에 열을 올리

다 못해 《국방증기계획》까

정국을 보수파당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보려는 흥심의 발로이다.

그러나 외세와 야합하여

지들의 불순한 목적을 이루어보려는 남조선호전 광들의 범죄적 기도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

총에는 대포로, 행에는 그보다 강

력한 억제력으로 대답하는 것이 공화국의 철의 의지이고 배짱이다.

호전 광들의 핵전쟁 기도가 로끌화

될 수록 공화국의 자위적 핵 억제력은

백배, 천배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만일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 세력이

공화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공화국 침략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수치스러운 참패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이

번 《호국》 훈련이 누구의 《국지도

발》과 전진전에 대비하여 하늘과

땅, 바다에서의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공공

언히 떠들어대고 있다.

그 모든 것이 현실화되면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에도 엄중한 후파를 미치게 될 것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미국과 전쟁과 벌

려놓은 북침 전쟁 모의 판과 《호국》

훈련은 조선반도와 주변 정세를 전

쟁 발발의 극단으로 끌고 가려는 위

험천만한 군사적 도발이며 남조선에

《안보위기》를 조성하여 《대선》

정국을 보수파당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보려는 흥심의 발로이다.

그러나 외세와 야합하여

지들의 불순한 목적을 이루어보려는 남조선호전 광들의 범죄적 기도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

총에는 대포로, 행에는 그보다 강

력한 억제력으로 대답하는 것이 공화국의 철의 의지이고 배짱이다.

호전 광들의 핵전쟁 기도가 로끌화

될 수록 공화국의 자위적 핵 억제력은

백배, 천배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만일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 세력이

공화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공화국 침략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수치스러운 참패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이

번 《호국》 훈련이 누구의 《국지도

발》과 전진전에 대비하여 하늘과

땅, 바다에서의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공공

언히 떠들어대고 있다.

그 모든 것이 현실화되면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에도

엄중한 후파를 미치게 될 것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미국과 전쟁과 벌

려놓은 북침 전쟁 모의 판과 《호국》

훈련은 조선반도와 주변 정세를 전

쟁 발발의 극단으로 끌고 가려는 위

험천만한 군사적 도발이며 남조선에

《안보위기》를 조성하여 《대선》

정국을 보수파당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보려는 흥심의 발로이다.

그러나 외세와 야합하여

지들의 불순한 목적을 이루어보려는 남조선호전 광들의 범죄적 기도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

총에는 대포로, 행에는 그보다 강

력한 억제력으로 대답하는 것이 공화국의 철의 의지이고 배짱이다.

호전 광들의 핵전쟁 기도가 로끌화

될 수록 공화국의 자위적 핵 억제력은

백배, 천배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만일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 세력이

공화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공화국 침략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수치스러운 참패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이

번 《호국》 훈련이 누구의 《국지도

발》과 전진전에 대비하여 하늘과

땅, 바다에서의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공공

언히 떠들어대고 있다.

그 모든 것이 현실화되면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에도

엄중한 후파를 미치게 될 것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미국과 전쟁과 벌

려놓은 북침 전쟁 모의 판과 《호국》

훈련은 조선반도와 주변 정세를 전

쟁 발발의 극단으로 끌고 가려는 위

험천만한 군사적 도발이며 남조선에

《안보위기》를 조성하여 《대선》

정국을 보수파당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보려는 흥심의 발로이다.

그러나 외세와 야합하여

지들의 불순한 목적을 이루어보려는 남조선호전 광들의 범죄적 기도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

총에는 대포로, 행에는 그보다 강

력한 억제력으로 대답하는 것이 공화국의 철의 의지이고 배짱이다.

호전 광들의 핵전쟁 기도가 로끌화

될 수록 공화국의 자위적 핵 억제력은

백배, 천배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만일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 세력이

공화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공화국 침략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수치스러운 참패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이

번 《호국》 훈련이 누구의 《국지도

발》과 전진전에 대비하여 하늘과

땅, 바다에서의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공공

언히 떠들어대고 있다.

그 모든 것이 현실화되면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에도

엄중한 후파를 미치게 될 것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미국과 전쟁과 벌

려놓은 북침 전쟁 모의 판과 《호국》

훈련은 조선반도와 주변 정세를 전

쟁 발발의 극단으로 끌고 가려는 위

험천만한 군사적 도발이며 남조선에

《안보위기》를 조성하여 《대선》

정국을 보수파당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보려는 흥심의 발로이다.

인민의 자랑 받는 대중운동센터

최근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이 보다 문명하고 향만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기념비적 창조물을 도처에 수많이 일떠세우고 있다.

훌륭한 유희시설들과 풍물어판, 물놀이장, 미니풀프장으로 이루어진 루라인민유원지와 개간보수된 만경대와 대성산의 유희장들, 반만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평양민속공원, 새세기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창전거리...

이제 얼마 안 있어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일떠선 인민야외빙상장과 풍경원이 준공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인민들이 건강하고 문명한 생활을 한껏 누릴 수 있게 하는 창조물들 가운데에는 통일거리운동센터도 있다. 통일거리운동센터 부지배인 최영걸

의 말에 의하면 원래 이곳에는 다른 목적에 편용할 건물을 건설하고 있었다고 한다.

지난 5월초 현지지도하시고 돌아오시던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통일 거리운동센터를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본래의 계획을 취소하고 이곳을 체력단련하고 치료체육도 할 수 있는 대중운동센터로 만들고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향상에 이바지하게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이렇듯 통일거리운동센터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기와 구상에 의해 생겨나게 되었다. 건물의 명칭은 원수님께서 직접 달아주시였다고 한다.

통일거리운동센터에 대한 그이의 관심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건물이 완공되

여 준공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또다시 이곳을 찾으신 원수님께서는 오랜 시간 어려움을 돌아보시며 기재들의 배치를 합리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 전문가들과 합심하여 사람들의 나이와 육체적 특성에 맞는 기재리용방법을 찾아내고 활용할데 대한 문제, 봉사원들이 전문물리치료지식을 습득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할데 대한 문제 등 앞으로의 봉사활동과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어느 한 운동기재에 몸소 앉아도 보시며 구체적인 작용원리를 알아보시고는 기재들이 좋다고, 준공되면 체력단련과 치료체육을 위해 근로자들이 많이 찾아올것이라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던

그이의 말씀에는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여매지 않고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실 백두산위인의 리상과 의지가 담겨져 있다.

릉라인민유원지에 가지여서는 몸소

나니 상박신경통과 심장질환

사람의 키와 몸무게, 주행거리를 입력하면 운동할 때 빨

라지는 맥박수와 소모되는 카

로리가 자동현시되는것도 좋

았지만 봉사원들이 나의 체

체

나니 상박신경통과 심장질환

사람의 키와 몸무게, 주행거

리를 입력하면 운동방법과 요령

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것

또한 이를테 없이 좋았다.

운동센터에는 각종 전자

치료설비들이 그릇하게 갖

추어진 건강회복실들이 있

는데 여기서 멀찌 치료받고

나니 상박신경통과 심장질환

사람의 키와 몸무게, 주행거

리를 입력하면 운동방법과 요령

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것

또한 이를테 없이 좋았다.

운동센터에는 각종 전자

치료설비들이 그릇하게 갖

추어진 건강회복실들이 있

는데 여기서 멀찌 치료받고

나니 상박신경통과 심장질환

사람의 키와 몸무게, 주행거

리를 입력하면 운동방법과 요령

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것

또한 이를테 없이 좋았다.

운동센터에는 각종 전자

치료설비들이 그릇하게 갖

추어진 건강회복실들이 있

는데 여기서 멀찌 치료받고

나니 상박신경통과 심장질환

사람의 키와 몸무게, 주행거

리를 입력하면 운동방법과 요령

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것

또한 이를테 없이 좋았다.

운동센터에는 각종 전자

치료설비들이 그릇하게 갖

추어진 건강회복실들이 있

는데 여기서 멀찌 치료받고

나니 상박신경통과 심장질환

사람의 키와 몸무게, 주행거

리를 입력하면 운동방법과 요령

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것

또한 이를테 없이 좋았다.

운동센터에는 각종 전자

치료설비들이 그릇하게 갖

추어진 건강회복실들이 있

는데 여기서 멀찌 치료받고

나니 상박신경통과 심장질환

사람의 키와 몸무게, 주행거

리를 입력하면 운동방법과 요령

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것

또한 이를테 없이 좋았다.

운동센터에는 각종 전자

치료설비들이 그릇하게 갖

추어진 건강회복실들이 있

는데 여기서 멀찌 치료받고

나니 상박신경통과 심장질환

사람의 키와 몸무게, 주행거

리를 입력하면 운동방법과 요령

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것

또한 이를테 없이 좋았다.

운동센터에는 각종 전자

치료설비들이 그릇하게 갖

추어진 건강회복실들이 있

는데 여기서 멀찌 치료받고

나니 상박신경통과 심장질환

사람의 키와 몸무게, 주행거

리를 입력하면 운동방법과 요령

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것

또한 이를테 없이 좋았다.

운동센터에는 각종 전자

치료설비들이 그릇하게 갖

추어진 건강회복실들이 있

는데 여기서 멀찌 치료받고

나니 상박신경통과 심장질환

사람의 키와 몸무게, 주행거

리를 입력하면 운동방법과 요령

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것

또한 이를테 없이 좋았다.

자상히 알아도 보신 친근한 어버이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친근하신 그이 모셔 장관은 따뜻하고 영광하신 그이 계서 미래는 창창하다고 공화국인 민들이 심장으로 노래부르는 것은 바로 원수님을 모시여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릴 그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절세위인의 발기와 지극한 관심속에 생겨난 통일거리운동센터는 앞으로 사람들은 육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퍼로를 회복하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박금일



운동기재들의 대부분은 첨단기술이 응용된 현대적인 기재들이다. 건강회복실들에는 신체의 각 부위별에 자극을 주는 척이선치료기, 중파투열치료기, 유선충치치료기 등 여러종의 치료기재들이 있다. 운동센터에는 수중초음파실도 있는데 길이 26m, 너비 7m의 수조에 수십여대의 앉은형 및 누운형 수중초음파의자들이 설치되어 있다.

건강하고 아름다워에서도 조화로운 육체미를 만드는 데서 손색이 없이 꾸려진 통일거리운동센터는 문을 연지 얼마 안되었지만 벌써 이곳으로는 수많은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 로인들이 즐겨찾아오고 있다.

김혜성

현대적으로 꾸려진 건강회복기지

통일거리운동센터는 인간 육체의 조화로운 발달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건강운동 및 퍼로회복기지이다.

3층과 5층짜리 건물들이 합쳐져 하나의 몸체를 이루는 것으로 특색있게 건설된 이 운동센터는 연간 1만 3 749㎡나 되는 넓지 않은 건물이다. 건강운동실, 수중초음파실, 건강회복실, 탁구장, 청량음료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운동센터는 운동기재들과 치료기재들의 현대화수준이 매우 높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중체

육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공화국에서는 축구, 농구, 배구, 탁구, 정구, 바드민턴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을 도처에 꾸려놓고 근로자들이 명절날이나 휴식일, 퇴근 후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일성경기장과 평양체육관, 청년중앙회관, 인민문화궁전 등에 가면 취미에 맞게 운동을 즐기는 남녀로소들을 볼수 있다.

통일거리운동센터는 기존의 체육시설들과는 달리 근로자들의 육체적 단련과 퍼로회복,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적인 운동 및 치료기지이다.

운동기재만 하여도 달리

힘을 모아 집필한 이 도서는 매우 가치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랑삼아 이야기하였다.

종양식물원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께서 일찌기 나라의 후손만대 번영과 인민들의 행복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의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식물자원을 조성하고 리용하는 과학연구 및 보급기지로, 교육문화교양기지로 꾸려주신 귀중한 재부이다.

이 식물의 대전당에 세계에 이름난 식물들까지 민족의 백일에는 퍼로회복을 위하여 금써내재기 같이 어기며 무성하게 자라던 수삼나무를 저택의 정원에서 더 튼튼하게 자라우시여 온 나라에 퍼져있었다고 하신 장군님. 현지시찰의 길에서 한고리의 나무, 한포기의 풀에도 그렇듯 송고한 민족에와 후대사랑이 깃들었음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는것이었다.

오늘 종양식물원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후대들에게 풍요하고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기 위한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나날이 훌륭하게 변모되고 있다.

본사기자 박단희 (끝)

중앙식물원을 찾아서 (3)

세상에 이름난 식물들을 여기에서 본다

우리 중앙식물원에는 온 세상의 이름난 식물들이 거의 뿐이었습니다.

원장선생이 하던 말을 생각하며 우리는 선물식물구로 향했다.

아버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1950년대부터 근 60년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내온 선물식물을 850여 종에 1 300여 품종이 보존관리되고 있다고 한다.

정교하게 품들여 꾸린 넓은 잔디밭에는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수많은 선물식물을 전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허리띠를 끼운 운동기재들이 있다.

임금님의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온 선물식물들은 이나무를 예우하고 있다. 그이후에 그이에게는 퍼그나 자란 수삼나무를 저택의 정원에서 더 튼튼하게 자라우시여 온 나라에 퍼져있었다고 하신 장군님. 현지시찰의 길에서 한고리의 나무, 한포기의 풀에도 그렇듯 송고한 민족에와 후대사랑이 깃들었음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는것이었다.

우리는 선물식물온실에서 선물식물을 보시면서도 이 강간을 살기 좋은 인민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선물식물온실에서 선물식물을 돌아보았다. 수리아이란공화국 하페즈 알 아씨드 전대통령이 평화와 번영을 축원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에게 보내온 온갖나무들이 있다.

우리가 찾은 온갖나무들이 이 말리아인사가 올린 헐마사드굴을 비롯한 수많은 선물식물들에서 절세위인들을 열렬히 흡모하며 따는 인류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선물식물온실에서 우리 나라 수삼나무 조상의 가지라는 수삼나무분재를 보는 순간 기습이 물들쳤다. 한 인민군구분대를 찾으시여 도로 향옆에 위병들마냥 높이 자란 수삼나무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말씀이 떠올랐던 것이다.

교예국 《춘향전》이 새로 나왔다

— 평양 국립 교예단에서 —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교예술단체인 평양국립교예단에서 최근 교예국 《춘향전》을 새롭게 창작하여 내놓아 관람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교예국 공연이 진행되는 평양국립교예극장으로는 요즘 매일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지난 시기 예술영화와 가곡으로 창조되어 널리 알려진 민족고전 《춘향전》이 교예극으로 새롭게 창조됨으로써 인민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더 잘 이바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봄바람 선들선들 불어오는 광한루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의 생활



력사
상식

고구려의 철기병과 포병

오래 동안 동방의 강국으로 이름을 떨치었던 고구려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방대한 규모의 상비 무력을 갖추고 있던 고구려는 군종, 병종도 정연하게 세분화되어 있었다.

고국원왕무덤벽화에는 철갑옷을 입힌 말우에 긴 창을 들고 앉아있는 중무장한 철기병, 간단한 차림새의 경기병, 활과 화살을 착용한 군사, 어깨에 도끼를 멘 군사, 고리자루긴칼과 방패를 든 군사들이 렐을 지어나가는 행렬도가 그려져 있다. 기병과 윤에서 말과 기수에게 다 철갑을 쓴 기병(철기병)의

위력은 대단하였다. 말에 투구를 쓰우고 네다리를 제외한 몸통이 전체에 갑옷을 입혔는데 그런 말을 《개마》라고 하고 그 기병을 《개마무사》라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대형의 기마모형을 중심으로 하여 그 좌우와 뒤에 대, 중, 소형의 쇠기마모형들과 소형의 청동기 마고형들로 구성되어 나타난 강원도 철령의 기마모형들을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다.

유럽에서 중무장기병이 처음으로 등장된 것은 732년 프랑크왕국의 궁내대신이었던 칼 마르텔이 지휘한 아랍인들과의 전투였다. 그에 비

하면 고구려는 뛰어난 시기에 강력한 철기병들을 가지고 있었다.

고구려북군에는 포병도 있었다. 중세 전쟁사를 돌아보면 성에 대한 공방전이 기본을 이루었다. 고구려에서는 전투에서 성을 파괴하기 위한 포차를 많이 이용하였다. 651년 고구려가 신라의 북한성을 칠 때 포차를 벌려놓고 돌을 날렸더니 날아가는 돌에 성가가워 접이 맞는 대로 무너졌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은 고구려에 병으로서 포병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에 비

에서도 《강계포수》라는 말이 통용되었다. 원정에 참전한 조총수들의 대부분이 《강계포수》들이었다.

《강계포수》라면 모두들 무서워 별별 떨었다고 한다.

《강계포수》들은 1866년 10월 《병인양요》 때 강화도 남쪽으로 대군이 진격하면서 강화도를 빙빙 돌면서 강화도를 공격한 프랑스 함대를 격퇴하였다.

는 싸움에서도 이름을 떨쳤다. 당시 프랑스군에 종군하고 있던 한 신부의 일기에는 《호랑이잡기로 유명한 포수 300명》이 전등사에 숨어있다는 프랑스 군을 기습하는 바람에 혼이 났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강계포수》란 말은 외적파의 싸움에서 이름을 떨친 우리 인민의 기상과 용맹을 상징하고 있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

다.) 장인: 《하렸다는 말렸다.》 사위: 《하렸다는 말렸다.》 장인: 《허거프게 웃으며》 《너는 참 천치로다.》 사위: 《너는 참 천치로다.》

본사기자